

## 인생이란 무엇인가?

신성근 신부

사람은 누구나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답을 얻고자 한다. 그 많은 질문 중에 인생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체험하는 것에 따라 의문 또한 다르며, 보는 눈도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하고 답해준 사람은 아직 없다. 과연 인생 자체에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으니만치 우리의 삶 그것이 곧 인생이다. 따라서 수수께끼를 풀듯이 '인생은 이것이다.'라는 대답을 찾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체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 사람이 사는 모습이 곧 인생이다.

### **1. 남과 함께 사는 인생**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사랑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과 맺어져 있다.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한다. 사람과 사람이 맺어져 가족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를 이룬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이다. 사람다워지는 첩경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에게 매이는 것이 괴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 행복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오지만, 고통과 슬픔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오기도 한다. 전쟁과 다툼, 환경 공해, 교통사고, 절도 등 헤아리면 한이 없다. 심지어는 부부, 자식, 친구 사이도 몰이해와 원망으로 원수처럼 지내기도 한다. 사람은 신뢰와 사랑이 없을 때는 보람보다는 고통을 더 심하게 느낀다. 서로 간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보다는 퇴화하고 마는 것이다.

### **교회는 답합니다.**

사람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참 행복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은 타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한 잘 잘못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사람은 타인들과 함께 보다 더 사람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

### **2. 육신으로 사는 인생**

'살아있는 몸' 그것이 곧 사람이다. 몸이 있어 서로 보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세상의 온갖 행복을 몸으로 체험한다. '살아 있는 몸'은 엄연히 사람의 존재 양식이다. 몸으로 살아가기에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언짢고, 건강이 안 좋으면 일손이 잡히지 않으며 의욕을 잃는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들도 기분으로 좌우되는 때가 많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산다는 표지이다.

그러나 사람의 불행과 괴로움은 거의 전부가 몸으로 느낀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

니다. 사람이 안 먹고, 안 입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다. 병 들고 장애의 몸이 되는 고통 등을 생각하면 세상만사가 암담해진다. 더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닥쳐온다.

#### **교회는 답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육신은 고귀한 것이며, 하느님만이 그 생명을 거두실 권리가 있다. 인생은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죽음을 넘어서까지 누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난, 질병, 사고와 재앙은 결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고 건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육신 생명을 누리도록 힘써야 한다.

### **3. 정신(영혼)으로 사는 인생**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신(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사는 의미를 묻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은 선과 악을 가릴 줄 알고, 사람의 도리를 알며, 법과 규칙을 만들고, 사고 능력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 작용은 정말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요, 하느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사물을 판단해서 행동할 줄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안다.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라는 자아의식이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은 바로 이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정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이 정신 즉 영혼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또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더구나 그 자유의지는 방향을 잃기도 하여, 양심보다는 욕망을 따르기도 한다.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 추구에 항구할 수만은 없다. 사람의 욕망이 언제나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교회는 답합니다.**

사람은 정신을 갖춘 몸이다. 사물의 이치와 깨닫는 능력(이성)이 있고, 정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자유의지)이 있다. 육신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 뒤에도, 사람은 끝없이 살아남는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을 닮음에서 온다.

### **4. 현세에서 사는 인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의 사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물이 있기에 사람은 일하며 만들고, 계획하고 숙고하고 감탄한다. 이 모두는 모두가 좀 더 잘 살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즐거운 보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자기 삶을 보람있게 만들고 남들은 행복하게 해 준다.

그러나 현세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세상은 발전시키고 사람을 성숙시키지만,

이 일 때문에 일은 고통스럽기도 하다. 일 때문에 사람은 단조로움을, 권태감을, 실망을 맛보기도 한다. 그리고 죽임이 닥쳐오면 이 세상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 **교회는 답합니다.**

이 세상은 최선이신 하느님의 지으셨기에, 선하고 유익한 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을 가꾸고 관리하여 더 인간답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소명이 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신성하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고생스러워진 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수고로움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 **5. 시간(세월) 속에 인생**

우리 인생의 신비로움 중 하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 죽는 일이 강물이 흐르듯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앞날에 희망을 두고 산다. 과거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앞날에는 무엇인가 달라 잘 것이라고 희망한다.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이 생기리라는 기대한다. 시련과 실패,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도 세월이 흐르면 서서히 기억에서 멀어진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의 인생을 꾸미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자신의 인생을 꾸미고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의 무상함처럼 빠져린 아픔도 드물다. 즉 깊은 불안과 불만을 느낀다. 행복한 순간이 지나가리라는 생각에 안타까워하거나 허무감도 느낀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인생의 산업과 명예가 남는다지만, 그것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 죽음의 불안 속에서 과연 무엇이 나를 든든히 붙잡아 줄 수 있는가? 단 한 번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인간은 오직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 자유로이 살아갈 때만 그 삶이 충만해진다(44항).

즉, 인간은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제가 온전히 당신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고통도 시련도 없을 것이며, 당신으로 충만할 때 제 삶은 완성될 것입니다”(성 아우구스티노)(45항).